

작품 내용

제 목	네가 될 수 없던 나에게
내 용	내가 누군가를 이토록 사랑한 적이 있을까. 아직 소년의 티를 완전히 벗지 못한 나였지만, 그때 내가 느끼고 있던 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정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누군가는 내가 사춘기를 거치며 잠시 앓는 열병이라고 말했겠지만, 그 시절의 나에게 그런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저 너를 좋아했고,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아름답다고 믿었다. 네가 걷는 방식, 사용하는 말, 펜을 잡는 방식, 무심코 짓던 표정과 네가 남긴 작은 흔적들까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이 너의 손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내게는 별처럼 빛나보였다. 밤에 나방이 작은 빛을 발견하면 그것이 불인지 별인지도 모른 채 날아가듯이, 나도 너에게서 빛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쫓아가 손에 넣고 싶었다. 과연 누가 이 감정을 사랑이 아니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독한 사랑이었다. 어른들은 이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너를 향한 마음은 전혀 작아지지 않았다. 네가 아름답다고 바라본 풍경 하나까지 내게는 특별한 의미가 되었다. 네가 좋아한다고 말한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었고, 네가 아름답다고 한 것을 나 역시 아름답다고 느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들이 왜 좋은지조차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네가 좋아했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했다. 그래서 나는 이 감정을 잊지 않기 위해 계속 너를 바라보았다. 동경했고, 흉내 냈고, 네가 걸었던 길을 나도 걸었다. 왜 그렇게까지 네 흔적을 품었는지는 당시의 나도 알 수 없었지만 동경과 사랑이라는 두 단어가 너에게 손을 뻗는 나에게는 너무나 훌륭한 이유가 되어주었다. “아, 넌 왜 이렇게 아름다워서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걸까?” 사춘기였던 나는 가끔 너에게 닿지도 못한 채 혼자 화를 내기도 했다. 네가 너무 멀리 있다는 것이 서운했고, 아무리 바라보아도 그 거리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 역울했다. 그런데도 너는 한순간도 아름답지 않은 적이 없었다. 너는 어느새 나의 뮤즈가 되었고, 나는 네가 하던 모든 것을 직접 해보기 시작했다. 그 결과물들은 분명 내 손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내가 펜을 쥐었고, 내가 선을 그었으며, 내가 문장을 적었다. 그런데도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김없이 너의 향기가 났고, 내가 만든 것인데도 너를 닮아 있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간다고 하지 않던가. 나는 그것이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했다. 네가 바라보던 것을 바라보고, 네가 좋아했던 것을 좋아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너와 같은 곳에 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네가 하늘에 그려놓은 이정표를 따라 하나씩 점을 찍었다.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점들이 이어지기 시작했고, 나는 그 선이 언젠가 너의 모습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었다. 언젠

가 이 점들이 모두 모이면 네가 될 수 있을까. 그 모습을 완성한 나는 정말로 네가 될 수 있을까.

‘날 기다려줘.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너의 이해자가 되어줄 테니까. 그러니 부디 조금만 기다려줘.’

그때의 나는 사랑을 그렇게 믿었다. 국어사전에 적힌 한 줄짜리 정의가 아니라, 누군가를 깊이 바라보고 그 사람의 세계를 이해하고 싶어 하는 마음. 문학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그 지독하고 아름다운 감정이야말로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내가 만든 모든 것에서 네 향기가 난다는 것이 더 이상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저주처럼 느껴졌다. 소유욕에 목이 탔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든, 아무리 오래 바라보든, 아무리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든 네가 처음 남긴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그 흔적을 숨기고 싶었다. 내가 만든 것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래서 새로운 향을 뿌리고, 새로운 색을 입히고, 새로운 말을 곁댔다.

그러나 향이 날아가면 다시 희미한 꽃냄새가 돌아왔다. 내가 아무리 덮으려 해도 너는 내 안에 남아 있었다. 그제야 나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 감정이 정말 사랑이라면,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에서 멈추지 못하고 너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는 걸까.’

분명 처음에는 동경이었다. 네가 아름다워서 바라보았고, 네가 멋있어서 닮고 싶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닮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다. 네가 가진 것을 갖고 싶었고, 네가 걸었던 자리에 내가 서고 싶었으며, 마침내는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고 싶어졌다.

동경이라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했던 것이 어느새 너를 대체하고 싶다는 욕망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 변화는 너무나 조용해서 나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벽지 안쪽에서 곰팡이가 번져나가듯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랐다. 나는 그것이 사랑이 깊어진 것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사랑의 크기가 커진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다른 마음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결국 나는 그토록 되고 싶었던 네가 될 수 없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야 나는 네가 아니었으니까.

네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걸어도 내가 남기는 발자국은 네 것과 달랐고 네가 사랑했던 것을 똑같이 사랑해도 그 안에서 내가 발견하는 것은 결국 나만의 것이었다. 네가 남긴 흔적은 아무리 오래 바라보아도 네가 남긴 흔적,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것으로 바뀌지는 않았다.

그제야 알 것 같았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의 것을 빼앗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닮고 싶은 사람 앞에서도 끝내 나 자신으로 남는 것, 가장 가지고 싶은 흔적일지라도 그것을 남긴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것이 내가 늦게 배운 사랑의 방식인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는 네 흔적을 나라는 존재로 집어삼키려 하지 않으려 한다.

닿을 것 같으면서도 닿지 못하는 거리인 세 걸음 뒤의 자리에 서보려 한다. 네가 남긴 것을 바라보지만 내 것이라고 우기지 않고, 네가 걸었던 길을 기억하되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며, 네가 남긴 빛을 바라보면서도 이제는 그 빛만

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려 한다.

이번에는 너를 닮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름을 적기 위해서 다시 펜을 쥐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하나씩 다시 알아가기 위해서. 어쩌면 나의 첫 문장은 서툴고, 내가 그리는 선은 네가 남긴 것보다 보잘것없을지도 모르지만 괜찮다. 적어도 이번엔 그려질 것은 너의 모습을 흉내 낸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며 만들어낸 것이니까.

‘지금부터라도 나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길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앞으로도 수없이 너를 떠올릴 것이고, 무언가를 만들다가 문득 네 흔적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필요는 없을 것이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나, 한 시간 전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간 나, 십분 전의 나보다 조금 더 나다운 나. 그렇게 아주 작은 차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다시 한 번 발을 내디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 이제는 너를 닮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로 살아가기 위해 걸어가려 한다.

나의 동경, 나의 우상, 나의...

아니. 내가 한때 그토록 지독하게 사랑했던 그대여.

부디 내가 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멀리서 나의 안녕을 빌어주기를.